

세브란스의전의 발전과 吳兢善

김 도 형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는 에비슨(O. R. Avison, 1860~1956)이 ‘창업’하였고, 오궁선(1878~1963)은 이를 ‘수성(守城)’하였다. 에비슨은 한국에 근대서양의학과 병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인 의사를 양성하여 그 과업을 오궁선에게 물려주었다. 오궁선은 에비슨이 가장 신뢰한 한국인 동역자였고 후계자였다.

세브란스의학교는 이미 대학 수준의 의학교육을 행하고 있었지만, 일제 강점 아래에서는 일제의 법령에 따라 1917년 5월 14일에 사립 전문학교로 인가되었다. 이때 비로소 ‘교실’을 설치하여, 명확한 진료와 분과가 시행되었다. 피부과교실의 시작도 바로 이때였다.

피부과 교실의 설치에 오궁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에비슨은 일제의 법령에 의한 병원과 교육을 위해 준비하였다. 미국 의사 자격을 가진 오궁선은 1914년 11월에 일본의 법령에 의한 의사 자격을 얻었고,¹⁾ 또 1916년, 1년 동안 동경제대 의과대학 피부과에서 연구, 연수하였다. 이런 준비 후에 비로소 세전 설립과 교실 설치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세브란스의전의 발전과정에서 ‘수성’의 책임을 진

1) 『조선총독부 관보』 1915년 1월 9일자. 오궁선은 등록번호 70호로 면허가 인가되었다.

오금선의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로는 오금선의 새로운 의학 수용과 피부과(오금선, 이영준)의 의학 계몽 활동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교장으로 학교 경영을 책임진 오금선이 ‘창업’ 선배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연희전문학교와의 통합과 대학 설립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금선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발간된 『해관 오금선』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당시 발간된 신문, 잡지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1. 세브란스 부임 전의 오금선

오금선은 1896년 10월, 배재학당에 입학하였다. 배재학당 재학 시절 학생들의 조직이었던 협성회에서 활동하였다. 1898년 1월, 제4차 임원 개편에서 서기로 선임되었다.²⁾ 협성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배재학당 학생들이 초창기의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서 활동했으므로, 오금선도 독립협회에 참여하였을 것이 확실하다. 독립문 건립을 달성했던 독립협회는 1897년 중반 경에 활동 방향을 계몽운동으로 바꾸고,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권의식, 자주독립의식 등의 근대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는데, 이 시기에 배재학당에서 이미 시험되고 있던 토론회를 도입하여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³⁾ 오금선이 독립협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898년 말, 독립협회가 주도하던 만민공동회운동은 정부에 의해 탄압되었다. 대한제국 정부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황권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독립협회 운동 세력이 ‘공화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의구심

2) 『협성회회보』 1 (1898.1.1), 「회중 잡보」.

3) 신용하, 『獨立協會研究』, 일조각, 1976, 261~273쪽, 참조.

으로 해산시켰던 것이다. 이에 독립협회 운동을 주도하던 윤치호 이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의 도움으로 검거를 피했다.⁴⁾ 오금선도 선교사의 도움으로 피신생활을 하였다. 미국 침례교(‘엘라딩기념선교회’) 선교사 스테드만(F. W. Steadman) 목사 집에 피신하였다가 스테드만의 한글 선생 노릇을 하게 되었으며, 스테드만을 따라 공주에서 지냈다(스테드만은 1896년 공주침례교회를 설립). 정부의 탄압이 중단되자 오금선은 다시 상경하여 배재학당을 졸업하였다(1900). 배재학당 졸업 후에 오금선은 다시 공주로 내려가 한글 선생을 계속하면서 선교 활동을 도와주었다.⁵⁾

1901년 4월, 스테드만은 선교지를 일본으로 옮겼다.⁶⁾ 오금선은 잠시 불(William F. Bull, 1899년 군산 부임)의 조사가 되었다가,⁷⁾ 다

4)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도 선교사 집에 은신하였다가 아버지 윤용렬의 주선으로 덕원감리가 되어 서울 정계를 떠났다(신용하, 위의 책, 1976, 509~510쪽).

5) 해관오금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금선』, 연세대출판부, 1977, 참조.(이하 전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는 이 책을 활용하였음).

이때 오금선은 차관을 하지 말라는 헌의서를 공동(趙鍾奎, 吳兢善, 李日榮, 周相鎬, 李台魯, 金淵根, 李應鍾)으로 제출하였다(1901년 5월). “지금 우리나라의 형세를 돌아보면, 해관(海關), 세납(稅納), 광업, 상업, 농업 어느 하나 확실히 성장하는 것이 없는데 이익을 얻는 방책에 몽매하면서 망령되이 외채를 구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수입과 지출을 헤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외채를 사용하면 그 이자가 점차 불어날 텐데, 나라의 재정은 이전처럼 다 써버리고 그냥 그렇게 시일이 지나 부채 상환 기일이 되어도 청산할 방책이 전혀 없을 것인 바, 다만 토지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니, 오늘날 외채를 논하는 자가 나중에는 나라를 팔아먹는 이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中樞院 편, 『照會原本』<奎 17234> 제1책, 광무 5년(1901) 5월 일]. 어떤 경로로 이런 헌의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6) American Baptist Missionary Union, *Eight-Eighth Annual Report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held at St. Paul, Minn. 1902*,(Boston: Missionary Rooms, 1902), p. 188.

7) Anabel Major Nisbet, *Day in and day out in Korea: being some account of the mission work that has been carried on in Korea*

시 군산 야소교병원으로 부임한 남장로회 의료선교사 알렉산더(A. J. A. Alexander)의⁸⁾ 한글 선생이 되었다. 이때 호남 지역은 남장로회가 관할하고 있었다. 1892년부터 한국선교를 시작한 남장로회는 충청도, 전라도를 선교지역으로 할당받았는데, 농민전쟁(동학농민운동, 1894)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1895년 봄에 드루(A. D. Drew, 유대모) 선교사가 군산에 정착하여 진료소를 개설하였다. 드루는 선교사 전킨(W. M. Junkin, 전위렴)과 함께 선교 사업을 행하였는데, 전킨은 구암교회를 세우고 群山男學校(1902), 여학교(1903, 후에 멜볼딘여학교)를 세웠다. 그런데 드루는 1901년 과로로 인해 귀국하였고(귀국 후 병사. 전킨 선교사도 과로로 귀국한 후 병사), 약간의 공백 기간을 거쳐 1902년 12월에 알렉산더 선교사가 병원장으로 왔다.⁹⁾ 그러나 알렉산더도 부친 사망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이때 오공선도 귀국하는 알렉산더를 따라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¹⁰⁾

since 1892 by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Richmond, VA.: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1920), pp. 27, 191.

- 8) 알렉산더(Alexander J. Aitcheson Alexander, 1875~1929)는 1901년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1901) 미국 남장로회 의료선교사로 군산으로 부임하였다(1902. 12). 그러나 도착 직후에 아버지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이듬해 귀국하였다(1903. 2. 7). [*Report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903*, pp. 50~51 ; Kentucky Historical Society, *Kentucky Ancestors* Vol. 45, No. 1(2009), pp. 10~11].
- 9) 군산지역의 선교와 교육에 대해서는 송현강, 「한말·일제강점기 군산 영명학교·멜볼딘여학교의 설립과 발전」 『歷史學研究』 59, 湖南史學會, 2015 (이 논문에서는 군산선교는 1896년으로 적고 있다). 의료선교에 대해서는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100~102쪽.
- 10) 그런데 오공선이 유학길에 오른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해관 오공선』에서는 1902년 1월 하순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만열은 알렉산더가 군산에 부임한 것이 1902년 가을이라고 하였으니(이만열, 위의 책, 102쪽), 적어도 오공선은 이 이후에 유학을 떠났을 것으로 보이며, 송현강은 『해관 오공선』을 인용하면서 별다른 근거없이 귀국하는 알

오금선은 알렉산더 고향과 가까운 켄터키주의 센추럴대학(Central University of Kentucky)의 아카데미 과정을 마치고 1904년 봄에 루이빌 의과대학(Hospital College of Medicine, Louisville, KY)에 입학하였다.¹¹⁾ 학비를 보조해 주던 남장로교 선교부로부터 신학 공부를 권유받았지만 그는 의학을 전공하여 의료선교사의 길을 택하였다. 의과대학 졸업한 오금선은 6개월 동안 루이빌 시립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거쳤고, 남장로회 소속 의료선교사로 1907년 11월에 귀국하였다.¹²⁾

오금선은 바로 군산으로 내려가 龜岩야소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알렉산더 선교사의 귀국으로 문을 닫았던 구암야소병원은 1904년 다니엘(T. H. Daniel) 부부가 부임하면서 재개되었고, 1906년 알렉산더의 기부금으로 프랜시스 브리지스 애킨스 기념병원(Francis Bridges Atkinson Memorial Hospital)이 신축되었다.¹³⁾ 남장로회 최초의 병원급 진료기관이었다. 하지만 오금선은 이내 목포로 내려가 목포진료소를 운영하던 포사이드(W. H. Forsythe)가 안식년을 마치고 귀임할 때까지(1908. 3) 목포진료소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1908년 5월 19일 군산으로 복귀하여 구암야소교병원을 지켰다.¹⁴⁾

렉산더를 따라 갔다가 하면서 '1903년 초'라고 하였다(송현강, 위의 논문, 136쪽).

- 11) *Catalogue of Central University of Kentucky 1902-1903*: 1903-1904; 1904~1905; 1905~1906; 1906~1907.
- 12) Anabel Major Nisbet, *op.cit.*, pp. 59~60.
- 13)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205~206쪽. 그후 알렉산더 선교사는 1916년에 순천의 병원 건립에도 기부하여 알렉산더병원(安力山病院)을 지었다(이만열, 412쪽).
- 14)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Station reports to the eighteenth annual meeting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July, 1909), pp. 29~30, 60. 당시 다니엘은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났다.

구암야소병원에서 오공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의료 활동을 행하여 칭송을 받았고, 또 연말을 당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준 '자선'을 베풀었다.¹⁵⁾ 이와 아울러 오공선은 군산남학교를 분리하여 安樂소학교를 구암교회에서 운영하도록 하였다(1908). '안락'은 오공선의 유학을 후원하고, 소학교 건축기금을 지원한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이를 이어 오공선은 1909년 초에 중등과정을 永明중학교로 인가 받았다. 안락소학교는 4년제 초등과정, 영명중학교는 4년제 고등과와 2년제 특별과로 운영되었다.¹⁶⁾

오공선은 다시 1910년 봄에 광주야소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911년 9월에 다시 목포 야소교병원으로 옮겼다.¹⁷⁾ 그는 목포에서도 병원 운영과 더불어 교육 사업을 겸하여 영흥중학교(존 와킨스 학교, John Watkins Academy) 교장(5대)으로 활동하였다.¹⁸⁾

15)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4일, 「吳氏慈善」; 1910년 3월 16일, 「吳氏慈善」.

16) 송현강, 앞의 글, 참조.

17) 1898년 가을에 벨(E. Bell) 목사와 함께 온 의료선교사 오웬(C. C. Owen)가 세운 목포진료소로, 전남지역에서는 처음 세워진 서양병원이다. 이 병원은 벨 부인의 사망과 오웬의 일시 귀국으로 1900년 이래 문을 닫았다가 1904년 놀란(J. W. Nolan)이 부임하여 재개되었다(이만열, 앞의 책, 104쪽, 209쪽; 송현강,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부의 목포 스테이션 설치와 운영(1898-1940)」, 『종교연구』 53, 한국종교학회, 2008, 259쪽). 이 병원은 1914년 미국 미주리주 성 요셉교회의 헌금으로 프렌치병원(French Memorial Hospital, 부란취(富蘭翠) 병원)이 되었다. 한편 오웬은 1904년 광주로 옮겨 의료와 교육사업[광주 수피아학교]에 종사하였으며, 놀란(J. W. Nolan)도 1905년에 광주로 와서 광주진료소(광주제중병원, 현 기독교병원)를 건립하였다. 놀란 이후에는 버드맨(1907~1908), 포사이드(1909~1911)가 근무하였다.(이만열, 위의 책, 209쪽).

18) 이 학교는 1903년 8월, 벨 선교사가 세운 학교(영흥서당)로, 석조교사 건축비를 제공한 교회(Spartanburg Church, South Carolina)의 담임 목사의 이름 존 와킨스의 이름을 기념하여 불렀다. 이에 대해서는 송현강,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부'의 목포 스테이션 설치와 운영

2. 세브란스 부임과 피부과 설치

(1) 오궁선은 1912년 5월, 남장로회 소속 의료선교사로 세브란스병원에 파견되었다.¹⁹⁾ 세브란스의학교와 병원은 설비와 규모로 당시 의료선교의 중추 기관이었고, 이를 운영하던 예비슨은 이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기독교 교파를 추월한 ‘연합’으로 학교와 병원을 정비하였다.²⁰⁾ 북장로회, 북감리회, 남장로회, 남감리회, 호주장로회, 성공회 등의 선교회에서 참여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임시(비전임)로 파견되었으나, 1913년에 남북 장로회, 남북감리회, 호주장로회 5개 교파 소속의 선교의사들이 교수진을 이루면서 학교 이름도 ‘세브란스 연합의학교’로 바꾸었다.

오궁선은 세브란스의학교에 부임할 때부터 피부과를 담당하였다. 이미 루이빌의대 피부과 교수였던 존 에브윈 헤이즈(John Edwin Hays)의 영향으로 피부과를 공부하였고, 루이빌 시립병원 인턴 시절에도 피부과를 담당하였다. 피부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가 도미전 알렉산더를 도와 군산야소교병원에 있을 때 花柳病(성병) 환자가 많았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당시는 피부과와 비뇨기과의 분과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

(1898-1940), 『종교연구』 53, 2008, 269쪽. 『해관 오궁선』에서는 오궁선이 목포 ‘정명학교’ 교장이 되었다고 하나, 영흥학교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19) Anabel Major Nisbet, *op.cit.*, p. 129.

20) 기독교 연합에 의한 병원 운영 방침은 1908년 1회 졸업생 배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선의료선교회는 선교부의 승인을 얻어 세브란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학교를 연합의학교로 할 것을 정하였고, 1910년 총회에서 “세브란스의학교를 조선기독교 연합의학교(Union Medical College of the Christian Churches of Korea)로 이름한다”고 하였다.(연세의료원 120년사 편찬위원회, 『인술, 봉사, 그리고 개척과 도전의 120년』, 2005, 156~157쪽)

공선은 피부과 강의 이외에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다른 과목에 대한 보충강의도 행하였다. 기초학 과목의 교수들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미국인 임상교수들이 분담하여 가르치던 해부학, 생리, 병리, 내과, 외과 등 모든 학과를 혼자 맡아서 담임 통역하였다. 오공선 스스로도 이를 ‘백과대전’이었다.²¹⁾

그 사이 조선총독부의 법령이 정비되면서 1915년에 사립학교규칙이 개정되고 아울러 전문학교령이 시행되었다. 이에 사립전문학교로는 1917년에 연희전문학교(4월 7일)가 처음으로 인가되었고, 이를 이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5월 14일)가 허가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사립전문학교 인가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과 설비 그리고 교수가 필요하였다. 물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학교의 강의는 일본어로 해야 하였다. 서양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있던 연희전문이나 세브란스의전에서는 매우 큰 문제였다. 이런 사정 아래에서 에비슨 교장은 오공선을 1916년 4월부터 1년간 동경제대(東京帝大) 피부과로 ‘연수’ 하도록 파견하였다.

(2) 오공선은 동경제대 의대 피부비뇨기과 교실 토히(土肥慶藏) 교수의 연구실에 합류하였다. 토히 교수는 당시 일본 피부과학의 1인자였다. 오공선은 그곳에서 주로 피부병과 성병을 연구하였다. 당시 그 병은 조선에 매우 흔한 병이었다.

1년 후에 귀국한 오공선은 일본에서의 연구와 경험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그가 『매일신보』를 통하여 소개한 “새로운 의학”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²²⁾

21) 최용기 필기, 「오공선명예교수 기념강연」 『세브란시교우회보』 24, 1935, 2쪽.

22) 『每日申報』(이하 『매일』) 1917년 4월 12일 ~ 15일 「놀랍게 발달되는 새 의학(1~4)」.

- ① 사람의 눈동자를 옮겨서 눈먼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광명한 세상을 보게 할 수 있다.
- ② 일본의 신약 : 매독약인 606호가 있지만, 일본에서 만든 약의 효능이 독일제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일본에서 만든 세 종류의 약(에라미솔 아사미놀, 탄바루산)은 멕시코에도 수출하고 있다.
- ③ 의료기기 : 동경제대에서 ‘전기저항열’으로 일독성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이를 세브란스에서도 사용하려고 기계를 주문하였다. 40도 이상의 열기를 발생하게 하여 임질의 병독을 죽일 수 있다.
- ④ 長生不死의 가능 : ‘불사’까지는 알 수 없으나 ‘장생’은 의학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일부 의학자의 논의이다. 세포가 쇠약해지지 않게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면 ‘장생’이 가능하므로, 학문의 이치로는 세포를 왕성하게 하면 가능하다는 믿음 아래 연구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동양에서 “영약(靈藥)의 조종(祖宗)”으로 귀하게 여기던 인삼에 대해 일본 의학계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런 점에서 종래의 한약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브란스연합병원에서는 각종 한약 재료를 수집하여 미국 약제사가 분석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 ⑤ 라듐 광선을 이용한 치료 : 동경제대에서는 난치병[암종(癌腫)과 육종(肉腫)] 치료에 효험이 있는 라듐을 이용한 치료가 활발하다(토히 박사의 『피부병학』 책에 실린 사진, 치료방법 등을 소개함). 다만 가격이 비싸 일본에서도 이를 사용하는 병원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고, 더구나 조선에서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유감이다.
- ⑥ 태양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 수은석영등(水銀石英燈)이라는 기계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 태양 광선 중에 있는 전파 같은 자색(紫色) 광선이 나오는데, 이 광선이 모발을 흥분시키는 힘이 강하므로, 이를 이발충이나 모발에 당한 피부병의 치료에 매우 실효한 것이다. 이 기계를 조만간 세브란스에 도입할 예정이다.

- ⑦ 폐결핵을 박멸할 방안 모색 : 조선 청년의 사인은 대개 폐결핵인데, 일본에서는 유지자들이 결핵을 박멸할 방법으로 시설을 세우거나 폐결핵연구소를 만들며, 또 격리요양원을 실시하여 다소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선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일본에서는 동경의 북리(北里)전염병연구소에서 ‘싸이에노쿠플’이라는 새 약을 제조하여 폐병, 나병에 매우 효험이 있다. 조선에서도 이를 기다리고 있다.
- ⑧ 기타 재미있는 문제 : 흑인여자의 난자를 떼어다가 백인종 여자의 자궁에 붙이면 그 뒤에 태어날 아이는 백인종 혹은 흑인종인가?

물론 오금선은 새로운 의학을 소개하면서, 이를 조선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병리와 의약을 연구하여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를 취재한 매일신보의 기자는 오금선의 책상 위에 동경제대에서 가져온 파리종자의 피부병균, 17종의 시험관, 많은 환자의 질병 사진이 쌓여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금선은 비로소 총독부 법에 규정한 전문학교 교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금선의 귀국 직후, 전문학교령에 따라 ‘사립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법적으로 의학전문학교가 되면서 현재와 같은 ‘교실’이 설치되었다. 해부학, 생리학 및 생화학, 약물학 및 약학, 병리학, 세균학, 위생학, 법의학, 내과학, 외과학, 정형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신경과 및 정신병학, 그리고 ‘피부생식비뇨기병과’ 교실이 설치되었다. 피부비뇨기과학 교실 등이 탄생하였고, 오금선은 과장 겸 주임교수가 되었다.²³⁾

23)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奇昌德, 「海觀 吳兢善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醫史學』 5-2*통권 9), 1996.

오금선은 교실을 운영하면서, 교과목으로 ‘피부생식비뇨기병’을 3-4학년에 일주일에 1시간씩 개설하였다.²⁴⁾ 또 학생들에게는 토히 교수가 지은 『皮膚科學』을 추천하고, 이 책을 수업 시간에도 들고 들어가 참고하였다.²⁵⁾

3. 피부과교실을 통한 의학 계몽

1) 화류병 계몽과 공창폐지운동

(1) 피부비뇨기과학 교실을 책임진 오금선은 화류병(성병)의 만연을 가장 심대한 사회 문제로 보았다. 오금선은 이 병이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공창제도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창제도는 일제 식민지배의 산물로, 일제는 식민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공창제도의 폐지는 도덕적, 의학적 차원의 사회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식민지 사회, 지배 질서를 부정하여야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폐창운동은 대개 전자의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오금선은 화류병이 증가하는 이유를 ‘풍기 문란’ 때문이라고 보았다. 1920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²⁶⁾ 그는

특별히 화류병에 대하여는 일면으로 사회 풍기와 직접 관계를 가진 것인 까닭에, 환자가 증가하는 이면에는 사회의 풍기가 그 비례

24) 기창덕, 위의 글, 150쪽. ; 기창덕,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교과과정, 한국의학교육사, 1995, 75~81쪽.

25) 『해강 오금선』, 1977, 248~250쪽.

26) 『東亞日報』(이하 『동아』) 1920. 6. 7, 「花柳病이 增加」.

로 문란하여 갈 것이다. 요사이는 이런 것도 사회의 진보한 덕이라 할는지, 전에 없던 유곽(遊廓)이라는 것과 공연히 펼쳐 놓고 화류병을 소개하는 매음부들도 많이 생겼음으로 해마다 이러한 도덕상 용납지 못할 악독한 병이 많이 생겨 오는대. (...) 화류병 환자가 해마다 증가되어 가는 것은 참 유감 되는 일이라.

라고 하였다. 그는 환자 증가의 추세를 당시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숫자로 제시하였다.

1917년도 환자 2680명 : 매독 328명(13%), 임질 319명(9%), 횡현(橫痃) 63명(2%), 연성하감(軟性下疳) 99명(3%) (화류환자 829명 중 피부병 환자가 1/3)

1918년 신환자 3256명 : 매독 404명(12%), 임질 420명(18%), 횡현 116명(4%), 연성하감 138명(4%) / 총계 1780명

1919년 신환자 4334명 : 매독 623명(15%), 임질 576명(13%), 횡현 152명(3%), 연성하감 149(3%) / 총수 1500명²⁷⁾

이와 같은 성병 환자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오궁선은 이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한 ‘위생강연회’를 자주 행하였다.²⁸⁾ 화류병에 대한 계몽은 당시 피부비뇨기과에서 행하던 사회 봉사의 주된 업무였다.

27) 위와 같은 신문. 비율이 빠진 것은 보완하였다.

28) 가령 『동아』 1920. 4. 29, 「데삼회소년강연회」 - 종로청년회에서 3회 소년 위생강연회

(2) 당시 폐창운동은 기독교계에서 주도되었다.²⁹⁾ 기독교계에서 사회개조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절제운동의 차원이었다. 처음 폐창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선교사였다. 1919년 9월, 전조선선교사연합대회에서 매춘제 폐지를 총독부에 청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이어 1923년 선교사, 조선인, 일본인 연합으로 공창폐지운동을 추진하였다. 12월 11일에 일본인기독교청년회에서 감리교 공창폐지위원 4명을 포함하여 30여명의 목사, 외국인, 일본인 대표자들이 각각 단체를 조직하면서 공창폐지운동을 공조하기로 하였다. 각 단체를 대표한 사람은 조선인측 오공선, 일본인측 니와(丹羽清次郎), 외국인 합곡(Hopkirk)이었다. 일본 기독교 인사인 니와는 세브란스의전의 이사이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인측은 1923년 12월 15일, 중앙예배당 안 유치원 교실에서 오공선을 비롯하여 정신여학교 김필레, 중앙청년회 홍병선, 중앙예배당 김창준, 유지 청년 등 30명이 모여 공사창폐지운동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회의 이름을 ‘革淸團’이라고 하고 “일반 사회의 풍기 개선을 목적인 후 그 실행의 제일보로 공사창 폐지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창립총회는 20일에 열기로 하였다.³⁰⁾ 이들은 주로 기독교계 인사로, 오공선이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직을 만든 후, 오공선은 여러 차례 공창 폐지를 위한 강연회에 주력하였다.³¹⁾ 그는 공창제도를 “비인도, 부도덕, 불합리, 不紀律”이라고 규정하고, 조선에 공창제도가 실시된 지 8~9년에 불과하지만,

29) 윤은순, 「일제 강점기 기독교계의 공창폐지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26, 2007.

30) 『매일』 1923. 12. 17. 「창기 폐지의 신운동」

31) 『매일』 1924. 3. 4. 「모임」 중앙기독교청년회에서 춘기전도강연회를 개최, 「公私娼과 花柳病」. ; 『동아』 1924. 5. 8. 「공창폐지기성회 강연」 오공선: 공창폐지의 이유 ;

조선에 공창이 3548곳(대정 12년 말)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는 도쿄에 비해서는 비록 적지만, 그 뿌리가 견고하고 폐해가 만연해지기 전에 방지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오금선인 공창폐지의 이유로 든 것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³²⁾

- ① 도덕상 : 정조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인데, 공창은 정조를 매매하는 곳이며, 방탕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것이 생긴 후로 청년의 타락, 이혼, 情死, 사생아 등과 같은 것이 생겨났으니,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유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② 인도상 : 계급타파, 인류 평등을 주장하는 시대에 인신매매를 묵인할 수 없다. 娼妓들은 최소 50원, 혹은 4-5백원에 유곽으로 팔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형편은 철창 속에 갇힌 囚擄과 같다. 인류가 인류된 가치인 相愛, 相扶하여 인류애의 본능을 발휘해야 한다.
- ③ 위생상 : 화류병은 매독, 임질, 軟性下疳 등인데, 화류병은 국민을 멸망시키는 전염병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1920~1922) 세브란스 피부과 통계에 의하면, 각 연도별 매독 환자는 495명 → 573명 → 580명이며, 임질 환자는 493명 → 510명 → 53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류병은 치료도 오래 걸리고, 또 치료하지 않으면 인체의 기형, 반신불수, 癩疾, 廢盲, 생산 불능 등의 악영향이 있다. 일본의 통계에서도 공창이 없는 곳에 화류병이 적은 것으로 나온다.

그리하여 오금선은 “공창제도를 폐지토록 하여 남녀 정결의 德操를 장려하며, 풍기를 廓淸하여, 조선으로 도덕의 모범국을 만들시다”라고 강조하였다.

32) 『매일』 1924. 6. 1. 「오금선- 폐창운동과 그 이상 - 인도상견지로부터」

공창폐지운동은 1926년에 더 확산되었다. 8월 상순에 공창폐지기성회 회장 오금선은 기독교청년회연합회간사 홍병선(洪秉琬)씨와 홍종숙(洪鍾肅)씨 등과 협의하여, 기성회의 조직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창폐지신청서를 총독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³³⁾ 1927년 5월에는 조선인 만명, 일본인 및 외국인 2천명이 함께 서명하여 총독부에 공창폐지안 제출하였다.³⁴⁾ 그 청원서에는

我等은 公娼制度는 人格의 尊嚴을 汚毒하고 世界의 大勢와 문화의 進運에 伴치 못할 뿐 아니라 朝鮮 古來 慣習에 위반하고 그 存續은 人道上 默認키 難한 것도 思하오니, 閣下의 英斷으로써 속히 폐지하여 주기를 바라고 有志 1만 2천인의 連署로써 청원하 나이다.³⁵⁾

라고 하였다. 오금선과 일본기독교청년회 총무 丹羽清次郎가 새로 부임하는 총독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³⁶⁾

1928년에도 오금선은 사회의 개량, 인류의 진화 원칙을 위해 공창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때에도 그는 인신매매를 행하는 도덕상의 문제와 국민위생 상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는 “매독은 자손에게까지 유전되어, 유산, 정신이상, 백치, 반신불수 등 허다한 악증을 수반하고, 임질은 관절염, 심장내막염, 방광염, 자궁염, 고환염 등 악증을 수반하고, 또 대다수의 안질을 일으킨다”고 하고, 또한 화류병으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하게도 되므로, 이를 망국병이라 칭한다고 하

33) 『매일』 1926. 12. 1, 「경성에 폐창운동」

34) 『매일』 1927. 5. 11, 「代理總督 登廳勞頭에 萬餘名이 連署해 公娼廢止 請願 새 총독이 오는 길노 창기를 업새달나고 한다 公娼廢止期成聯合會에서」

35) 『매일』 1927. 5. 12, 「人道上 默認키 어렵다, 공창폐지 청원서 작성」

36) 『매일』 1927. 5. 15, 「公娼廢止請願 十六日에 提出」

면서 의학상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런 점을 거론하면서 총독부 당국이 빠른 조치를 다시 촉구하였다.³⁷⁾

폐창운동은 193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이미 오금선은 폐창을 위해 1만 2천여명의 서명 날인으로 총독부에 진정한 바 있었음을 환기시키면서, “우리 조선에는 평균 45%의 균을 가지고 있다는 의학적 근거에서 단연코 이 폐지운동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된다면 이 할 일 많은 인류에게 이 이상 더 좋은 복음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세브란스의전병원장이 된 피부과 이영준도 이 운동에 동참하였다.³⁸⁾

2) 통속의학 강연회

서양 근대의학의 수용은 구래의 질병관, 위생관을 크게 변화,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경성의전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학의식을 일반 민중들에게 알렸다. 당시에는 이를 ‘통속(通俗) 의학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론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추진하였다.³⁹⁾

오금선의 계몽적인 의학 강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화류병에 대한 것이 강조되었지만, 여러 전염병에 대한 강연도 수시로 행하였다. 특히 당시 ‘호랑이 보다 무서운 호열자’의 예방법을 비롯하여,⁴⁰⁾ 발

37) 오금선, 「當面한 모든 主張 - 公娼廢止를 실현케 하라」 『신민』 33, 1928.

38) 『동아』 1934. 6. 22(조간), 「公私娼問題의 大講演은 今夜! 新家庭 主催의 여름의 큰 講演會, 八時부터 公會堂에서」; 『동아』 1934. 12. 8 「女性解放의 烽火! - 萬二千名이 署名 廢娼을 陳情, 梅毒은 佛人15% 朝鮮人45%, 公娼廢止會長 吳兢善氏談」

39) 통속위생, 통속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강연은 1921년 경성의전에서 시작하였다.

40) 『동아』 1920. 6. 25, 「虎列刺의 豫防法, 음식물과 파리를 크게 주의하라 고 - 의사 오금선 담」

진열, 여름철이나 장마 후의 위생 등의 전염병, 육아 위생 등을 행하였다.⁴¹⁾ 이런 가운데는 일반적인 전염병과 더불어 여름철의 피부질환, 곧 “여름에는 피부가 늘어나서 기공(氣孔)이 뚫리어 땀이 많이 나고 땀에 먼지가 앉아 해가 되는데 몸을 깨끗하게 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⁴²⁾ 1925년에는 이재민을 위한 순회진료단을 조직하여 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⁴³⁾

세브란스의전 차원에서 본격적인 통속의학 강연을 진행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였다. 강연은 1930년에서 1936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9회의 강연회를 행하였다. 제1회는 세전문예부 주최, 동아일보 학예부 후원으로 행해졌고, 2회부터는 세전학생기독교청년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9회 동안 진행된 강연회의 연사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회 (1930. 11. 2)	沈浩燮	신경쇠약증과 그 요법
	崔明鶴	인류학상으로 본 인종문제
	李容高	외과 수술의 발전
제2회 (1932. 11. 22)	崔明鶴	性決定에 關하여
	李榮後	花柳病에 對하여
	沈浩燮	神經衰弱
	李容高	腹痛에 對하여

41) 『매일』 19200727. 「위생강연회」 동대문 윗청년회 주최, 오궁선이 하기(夏期) 위생에 대하여 ; 『매일』 1921. 7. 2. 「중앙기독교청년회 - 오궁선 “전염병의 관념에 대하여” ; 『매일』 1923. 7. 28. 「조야명사를 망라하여 연제, 강사 결정, 매일신보 주최 부인대강연회 - 육아위생, 오궁선」 ; 『동아』 1924. 2. 23. 「모임」 인사동조선여자청년회, 부인 강좌 “發疹熱病의 예방” ; 『동아』 1924. 7. 30. 「霖後の 질병과 위생 방법, 오궁선박사 답」

42) 『동아』 1924. 7. 30. 「霖後の 질병과 위생 방법」

43) 『동아』 1925. 7. 21. 「罹災民과 應急救濟 ◇ 世醫病院과 本社 聯合無料治療와 巡迴慰療」

제3회 (1933. 6. 3)	高明宇	外科 傳染病의 豫防的 治療에 對하야
	沈浩燮	病과 藥에 對하야
	李榮俊	癩病에 對하야
제4회 (1933. 11. 17)	崔明鶴	來世의 人間
	李容高	病者로서의 必要한 常識
	李榮俊	性及性病에 對하야
제5회 (1934. 6. 7)	具永淑	乳兒 간기
	申弼浩	婦人帶下症
	李榮俊	醫學上으로 본 産兒調節論
제6회 (1934. 11. 21)	沈浩燮	氣候의 變換과 疾病
	尹日善	癌에 對하야
	말틴	結核의 原因과 治療
	李榮俊	治療學上으로 본 民間祕法(迷信)에 對하야
제7회 (1935. 6. 6)	崔明鶴	人間
	吳漢泳	스포츠의 生理
	李榮俊	不老長生論과 更少年法에 對하야
제8회 (1935. 11. 19)	金鳴善	感情과 消化
	崔棟	醫學과 法律(1.의학의 社會性, 2.의학과 범죄 사항에 관한 단정)
	李容高	現代醫學의 傾向
제9회 (1936. 6. 19)	鄭一千	細胞와 社會
	李世珪	仙草人蔘에 對하야
	高明宇	通俗必知의 內臟外科症

강연회는 의학의 대중화, 「科學을 街路로」 등을 목표로 하였다.⁴⁴⁾ 강연의 연사는 세브란스의전을 대표하는 교수들이었다. 강연회의 주제는 '현대인은 누구나 알 필요가 있고, 또 알고 싶어할 문제들'이었

44) 『동아』 1936. 6. 17, 「世醫專學生基靑 主催 第九回 通俗 醫學講演, 十九日 밤 本社 學藝部 後援으로」

고, 이를 통해서 '계몽과 실익'을 얻을 수 있었다.⁴⁵⁾ 강연회 중간에는 바이올린, 독창, 중창 등의 음악까지 아우러져 강연장은 언제나 성황을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 세전의 학생기독교청년회는 방학을 이용하여 지방에서도 강연회를 행하였다. 의학 계몽을 위한 강연회는 세브란스의전 동창회에서도 수시로 실시하였다.⁴⁶⁾

1930년대 세브란스의 통속의학 강연의 핵심 인물은 피부과의 이영준(李榮俊)이었다. 9회 가운데 6번이나 연사로 등장하였다. 그가 행한 강연은 「花柳病에 對하야」(2회), 「癩病에 對하야」(3회), 「性及性病에 對하야」(4회), 「醫學上으로 본 産兒調節論」(5회), 「治療學上으로 본 民間祕法(迷信)에 對하야」(6회), 「不老長生論과 更少年法에 對하야」(7회)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이영준의 강연 내용이 일부 신문에 보도되었다.⁴⁷⁾

- ① 治療學上으로 본 民間祕法(迷信)에 對하야 : 발병 원인, 치료, 예방 등에 여전히 미신 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폐해가 생긴다. 가령 무당 판수를 부르는 것, 문둥병에 사람 고기가 좋다는 것, 미친 사람을 복숭아 채로 때리면서 경을 읽는 것 등은 병의 치료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는 손실이 있다.⁴⁸⁾
- ② 「不老長生論과 更少年法에 對하야」 : ㉠구라파학자들이 논한 유산균섭취로서 장내 세균박멸주의 ㉡미국학자들의咀嚼주의, 소식주의, 채식주의, ㉢일반 섭생 위생법, 즉 광선욕, 신선한 공기,

45) 『동아』 1935. 6. 4, 「世專學生會 主催 第七回 通俗 醫學 講演, 六日 晩 鍾路 中央基靑會館 本社學藝部 後援」

46) 『동아』 1937. 9. 2, 「世專 醫學 講演會 城津에서 盛況」

47) 세의전 교우회보에는 3회(최명학, 이용설, 이영준), 8회(김명선, 최동, 이용설)의 강연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48) 『동아』 1934. 11. 20, 「世專通俗醫學講演을 앞두고/ 演士의 演題解說 (하)」

더강(?) 운동, 일정한 취침 시간, 心氣安靜法 등의 보조방법. ㊸「부로노후」박사의 生殖腺 利殖法 찬성, ㊹「슈타이나」씨의 輸精管結紮法, 「후렝켈」씨의 부인에게 대한 엑스(X)선 卵巢照射法, 「로란」씨의 인공태양광선 照射法 등을 推獎함.⁴⁹⁾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영준이 당시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화장’에 관한 글을 세 차례에 걸쳐 신문에 기고한 점이었다. 그는 「화장을 잘하는 법」이라는 제목 아래, “인형과 같은 美를 나타낸다고 그것이 참 된 美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고, ‘건강은 미’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개성미를 발휘하는 것이 화장의 참 된 사명이자 미용법”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부과학에 의해 피부의 건강을 도모하는 화장법, 세안법, 비누 쓰는 법, 맞사지하는 법 등을 설명하고, 납 중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다.⁵⁰⁾

4. 고등교육의 꿈 : 세전의 정착과 종합대학에로의 발전

오금선은 세브란스의학교에 합류한 이후 줄곧 에비슨을 보좌하여 학감, 부교장으로 세브란스의전의 기틀을 닦았고, 마침내 에비슨을 이어 1934년 세전의 제2대 교장이 되었다. 주지하듯이 에비슨은 언더우드의 영원한 동역자로, 언더우드의 기독교연합대학 설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언더우드의 사후에는 연전과 세전의 교장을 겸하면서 줄곧 두 학교를 합하여 종합대학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⁵¹⁾

49) 『동아』 1935. 6. 14 ~ 23, 「世專 通俗 醫學 講演抄 (全7回)」

50) 『동아』 1934. 6. 22 ~ 26, 「화장을 잘하는 법(1~3)」

오금선도 세전의 발전과정에서나 또 교장이 된 후에 이러한 에비슨의 종합대학 설립 노력을 계승하였다.

(1) 한말, 일제 초기 언더우드와 기독교연합대학 설립 과정에서 에비슨은 언제나 언더우드를 지지하였다. 세브란스연합의학교 교장이었던 에비슨은 처음부터 연합대학이 의학과까지 포함하는 종합대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서울에 설립될 대학(university)에는 먼저 단과대학의 학과(college department)를 설치하고, 여기에 최초의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의 의학과를 합해야(unite) 한다고 하였다.⁵²⁾

언더우드의 사후 에비슨은 세브란스의전과 연희전문, 두 학교의 교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줄곧 두 학교를 통합한 종합대학 설립을 시도하였다. 에비슨, 원한경 등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면서,⁵³⁾ 설립자 언더우드의 대학 설립의 꿈을 계승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런 노력은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개교하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925년 말에 에비슨과 원한경이 다시 미국에 가서 자금을 모집하였고, 이를 달성하게 되면 연전과 세전을 합하여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협성신학교도 종합대학의 문과에 편입시키고자 계획하였다.⁵⁴⁾

51) 김도형, 「종합대학을 향한 여정 -언더우드와 에비슨의 동역」 『한국근대 의학의 기원, 연세』, 역사공간, 2016, 참조.

52) 에비슨 → 브라운, 1910. 7. 이 편지는 언더우드가 에비슨에게 부탁하여 선교회의 입장을 자세하게 쓴 것이다.

53) 『동아』 1920. 6. 3. 「연전교를 확장코자」 ; 『매일』 1920. 6. 3. 「연희전문학교 대학장 계획」. 에비슨은 미국에서 열린 감리교 총회에 참석하고, 연희전문을 동양에서 가장 완전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자금을 모집하는 중이었다.

연희전문학교의 종합대학 승격 추진은 1929년에도 있었다. 연전은 학교 발전을 위한 7개년 계획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종합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명실상부한 '조선 민간의 학술연구의 중심'이 되기 위해 자금을 확충하면서 내적으로는 박물관 창립, 조선 고서 수집 및 조선학 관련 출판 사업, 교수 연구록의 발간, 정년제 및 안식년 제도 신설 등을 계획하였다.⁵⁵⁾ 이런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장 에비슨은 1931년 4월, 연전 개교 16주년 기념식에서 불원 연전이 대학으로 승격하고자 하며, 조선 사람으로 총장을 삼겠다고 천명하면서,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⁵⁶⁾ 에비슨은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자금을 모으고, 10개월 뒤 1932년 2월에 서울에 돌아왔다. 그러나 미국 대공황의 여파로 모금이 여의치 않았고, 따라서 종합대학으로의 승격 작업도 추진되지 못하였다.⁵⁷⁾ 하지만 1933년 10월에도 연전에서는 세전 신축기지를 대여할 것을 결정하였고, 세전 또한 그해에 양교에서 에비슨 합동관을 건립할 것을 승인하였다.⁵⁸⁾ 곧 연전과 세전의 통합을 통한 종합대학 설립은 신촌에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에비슨의 종합대학 수립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요 자금도 문제였겠지만, 「대학령」에 의한 대학은 '경성제대'만으로 충분

54) 『동아』 1925. 12. 2. 「六百萬圓으로 綜合大學計畫 / 延禧, 世醫, 協神을 合同」 ; 『동아』 1925. 12. 3 「綜合大學의 計劃」. 이런 계획에 대해서 연전의 유역점은 2-3년전부터 계획되어 오던 것이고, 대학이 되면 이것은 미국인의 대학이 아니라 조선인의 대학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55) 『동아』 1929. 3. 28. 「私學發展의 曙光- 延專의 新計劃을 듯고」 ; 『중외일보』 1929. 3. 28. 「延專의 新計劃 - 붓그림을 업시하자」

56) 『동아』 1931. 4. 25. 「불원 대학될 연전 梨專, 총장은 조선 사람으로, 연전 창립 16주년 기념식, 어비신박사 언명」.

57) 『동아』 1932. 2. 19. 「고국 같은 조선으로!, 에비슨 박사 昨夜 귀경」

58) 『연세대학교백년사(1)』,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222쪽. 두 학교의 통합에 관한 회의의 회의록이 다수 남아 있다.

하다는 총독부의 정책 때문이었다.⁵⁹⁾ 에비슨은 선교회 규정에 따라 70세에 은퇴해야 하였다. 하지만 선교부는 그 직책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한번에 1년씩, 최대 3년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선교부는 에비슨에게는 1년씩 2차례 직책 수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다가 72세인 1932년 6월 30일 선교사 직에서 은퇴하였다. 하지만 연전과 세전 이사회는 선교사의 신분이 아니라 학교 교장으로만 2년간 더 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세브란스교장은 1934년 2월 16일까지, 연전교장은 9월 16일까지 수행하였다.⁶⁰⁾ 에비슨을 이어 양교의 부교장이었던 오궁선과 원한경이 두 학교의 교장을 이어받았고, 따라서 종합대학 설립의 사명도 이어갔다. 특히 에비슨은 두 학교의 교장 취임 축하회에서 “자기가 죽기까지에 종합한 대학을 건설하여 달라는 심장한 부탁”하였으며,⁶¹⁾ 이 종합대학을 이화전문까지 합친 남녀종합대학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⁶²⁾

(2) 오궁선은 세전의 학감, 부교장으로 누구보다도 에비슨의 종합대학 설립 의지를 잘 알고 있었다. 1926년, 경성제대가 설립되면서 조선에서의 대학 설립 문제가 불거지자 연전의 유역겸은 연전의 재

59) 1923년 당시에 이미 조선총독부의 입장은 명확하였다. 관립이었던 의학전문학교와 법학전문학교의 대학 승격 문제가 나왔을 때, 총독부에서는 일본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을 뿐 아니라 일본과 조선은 조건이 다르다고 하면서, 전문학교는 전문학교로써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동아』 1923. 7. 16. 「專門學校昇格運動에 就하여 - 長野學務局長談」).

60) 올리버 에비슨, 『근대한국 42년』 박형우 편역, 2010, 상, 368~369쪽. ; 『동아』 1932. 2. 19.

61) 『동아』 1934. 2. 28. 「兩專門校正、副校長 祝賀會 大盛況, 유지 170명, 어박사의 深長한 祝辭」

62) 『매일』 1934. 3. 1. 「綜合大學의 實現을 熱望 延專世專正副校長의 祝賀會」

산이 종합대학 설립에 충분하므로, “나의 희망으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합하여 종합대학을 설립하였으면 하는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세전의 오금선도 이에 대하여 「우리학교는 이백만의 기본재산이 있으므로 대학의 설립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의 희망은 연희전문학교와 종합하여 종합대학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 이상외다. 그리고 학교 이름에는 「조선기독교」 무엇이라고 하였으면 하나, 우선은 적립금이 오십 만원인 바, 이것은 관계 당국자와 같이 협의하면 가능성이 있겠지요”라고 하였다.⁶³⁾ 두 학교의 실무자 모두 연, 세의 연합을 강조하였고, 더구나 오금선은 학교 이름에 ‘조선기독교’라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1934년 오금선은 세전 교장이 된 이후에도 종합대학 설립을 위한 구상은 항상 잠복되어 있었다. 두 학교의 통합 및 종합대학 설립안은 일제 간섭이 노골화되기 직전, 1940년에 들어 다시 제기되었다. 연전과 세전의 ‘연합’을 통한 종합대학 설립안이었다. 이 계획은 세전이 좁고 소란한 서울역 앞을 떠나 연전 인근에 2백만 평을 마련하여, 동양 최대의 병원과 학교를 건설하고, “연세(延世) 종합대학”을 세운다는 것이었다. 즉,

가장 오래인 역사와 전통을 갖고 半世紀 동안 仁術朝鮮에 不朽의 공을 세운 世富蘭德醫專과 동병원이 금번 획기적 비약을 하게 되어 인연 깊은 현 교지를 떠나 延禧町 二百萬평의 송림 속에 三百萬원의 거금으로 명실함께 동양 제1의 설비 완전한 신 校舍 급 신 병원을 건설키로 내정코 방금 만반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 일찍 私學界의 일대 속안으로 각 방면에 기대가 컸던 延世綜合大學의 大理想의 실현이 일로 가까워졌

63) 『매일』 1926. 6. 3, 「조선에서도 민대설립 자유」

다는 명랑보가 신촌 학계에 선풍을 던지고 있다.⁶⁴⁾
라는 것이었다.

이런 계획을 세운 오금선 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교사 이전 문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원체 협착하고도 주위가 소란하여 연구 중이던 바 기지 문제가 연희정으로 해결되어 이 사회의 정식인가만 있으면 명춘부터라도 착공키로 하고 방금 모든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계획 만은 동양 제1의 설비를 다하려 하나 물자 관계로 어떠케 될른지요. 연세전 합병 문제는 최근 설립자들의 대이상이었으나, 여러 가지 관계로 급속히 실현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만은 좋으니 앞으로 전연 절망이라고도 단정키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여, ‘연세’의 합병은 설립자의 ‘대이상’이라고 하였으며, 그 실현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런 계획에 대해 연전의 원한경 교장도 양교의 연합은 “최초 설립자의 대이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세전의 이전이 잠시 중단되었던 ‘연합’을 일보 전진시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때 당시의 신문에서도 연합하여 만든 종합대학이 ‘연세’라고 부르고 있었다.⁶⁵⁾

이 계획이 발표된 후 세전의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사회에서는 “이전 문제는 이전비(移轉費)가 三百萬원이라는 방대한 금액이므로 이것이 조달되는 대로 즉시 실행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⁶⁶⁾ 이는 세전이 신촌에 당장은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

64) 『동아』 1940. 2. 15(석간), 「世專을 延禧松林에 移轉, 東洋 一의 校舍를 新築, 延世專綜合大學建設譜」.

65) 같은 신문

66) 『동아』 1940. 2. 24, 「世醫專校長에 吳兢善氏 留任」

지만 유망한 토지를 사는 것은 집행위원회에게 맡기기로 하였다.⁶⁷⁾

대학설립은 당시 조선 교육계의 중요한 현안이었다. 잡지 『삼천리』에서도 이를 특집으로 꾸미고, 각 전문학교 교장을 탐방하였다. 이때 원한경은 다시 대학설립 계획을 천명하였다. 그는 “조선 안에 있는 사립전문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가 제일 먼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하며, 이미 세간에 알려지기까지 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연전 창립 25주년인 1940년에 완수하려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원한경은 약 5백만 원의 자금을 모은다면 대학설립이 가능하고 이때는 건축과, 종교과를 더 증설할 계획이었다. 그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대학으로 프린스턴대학이나 하버드대학을 염두에 두었다.⁶⁸⁾

하지만 세전을 연전 옆으로 이전하고, 이를 합치는 문제가 연기되면서, 오궁선은 학교는 신촌으로 이전하지만, 당분간은 세전을 6년제의 단과대학 의과대학으로 매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역 앞의 세브란스병원의 “지금의 위치는 우리도 좋다고 볼 수 없으며, 옮기게 되면 延禧專門學校 結인 新村 松林 속으로 옮기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⁶⁹⁾ 단과대학으로 하더라도 신촌으로 옮길 계획이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3) 세전이나 기타 기관을 신촌의 연희 숲으로 옮기는 것은 세브란

67) 『朝鮮日報』 1940. 2. 24(석간), 「학교는 이전 안는다 / 교장엔 오궁선씨 선임」

68) 『삼천리』 제12권 제4호, 「未來의 大學 總長の 大學 創設 雄圖」 1940. 4.

69) 『삼천리』 제12권 제4호, 「未來의 大學 總長の 大學 創設 雄圖」 1940. 4. 50-54쪽. 회견 중에 주목되는 것은 “최초 본교가 창립되기는 韓國 光武 3년(西曆 1899년)”이라고 하였고, “개교기념일을 大年 11년 2월에 새로 발표된 교육령에 의해서 인가를 얻고 종래의 사립을 폐지하고 그저 세브란스聯合醫學專門學校라고 개칭하게 됐는데, 동년 5월 15일을 본교의 개교 기념일로 정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스의전을 경영하던 사람들의 오랜 꿈이었다.

일찍이 신촌의 연전과 서울역의 세전을 하루에도 오전, 오후에 다니던 예비슨은 연전 부근의 땅에 주목하였다. 그는 1920년대 초에도 미국에서 자금을 모금하여 연희전문을 대학교에 걸맞는 시설로 만들면서 동시에 “자금 500만원으로써 경의선 신촌역(新村驛) 부근의 풍광 가려(佳麗)한 토지 6만평을 개척하여 하나의 자유이상촌을 건설하여 여하한 인종을 불문하고 평화평등의 생활을 짓게 한다”는 계획을 가졌다.⁷⁰⁾ 이는 연희전문의 교장으로, 기혼 학생들을 개량 한옥에 살게 하고, 남편들이 교육 받는 시간에 부인과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제공하는 ‘모범촌’을 만들겠다는 것으로도 표명되었다.⁷¹⁾

오궁선도 1936년에 두 가지 계획을 천명하였다. 우선 하나는 “연구 창작을 위한 학자 아파트”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이런 구상은 당시 동아일보에서 각계 각층의 지도층에게 “문화 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했을 때 개진된 것이었다. 이때 연전의 백낙준은 조선문고 창설을, 백남운은 학술기관으로서의 중앙아카데미 조직을 제안하였다. 오궁선은 ‘교수 아파트’ 즉 ‘스칼라스 호텔’、或은 ‘스칼라스·아파트먼트’를 建築하여 朝鮮의 學者와 文人들을 收容하여 研究、創作에 專心케하는 方略이었다. 총 100만원의 자금으로 재단 법인을 만들어, 100명 정도 수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500평의 시설을 만들되, 그 위치는 “京城 西大門外 延禧莊 近處” 3천평이면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⁷²⁾

70) 『독립신문』 1921. 5. 31.

71) O. R. Avison, “Chosen Christian College, Laying of Corner-Stones of Underwood and Science Halls,” *The Korea Mission Field*, Vol. XVII, No. 12, December 1921. (문백란·김도형 편역, 『연.세전 교장 예비슨 자료(1)』, 선인, 2017, 242~243쪽)

72) 『동아』 1936. 1. 1, 「文化 朝鮮의 多角的建築 - 資力を 기다리는 새로운 領野」

다른 하나는 오금선이 결핵요양원을 계획하면서 신촌 부근에 토지를 사 두었다는 것이었다. 36주년을 맞아 세전은 항상 “민중건강 선보호”라는 모토 아래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어 왔는데, 이 사업은 오금선이 볼 때 “가장 훌륭하고도 자랑할 만한 획기적 대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멀지 않은 연희면 신촌 정거장 부근에 2천 7백평(시가 매 평 2원)을 사 놓았는데 금년부터 3만 원에 예산으로 건축에 착수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하였다.⁷³⁾

(4) 이때는 세전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첫 한국인 교장 오금선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다. 1936년 7월에는 해부학 교실의 최명학 교수의 사직권고 문제가 그 발단이였다.⁷⁴⁾ 오금선, 이영준, 최명학을 둘러싼 분규로, 세전 동창회에서도 오금선 교장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1937년 7월에도 오금선 교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계기는 치과 교수였던 부스와의 문제였다. 아마도 예비슨 교장 시절, 치과 의사 부스가 오면서 ‘치과의 특수우대조건의 계약’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치과 독립 문제가 결부되었다. 게다가 오금선이 미국 교회의 재정 지원 없이 학교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일부 서양인들이 조선사람이 교장으로 있는 데에 대한 반대 분위기도 작용하였다. 오금선과 D. 예비슨은 “교장, 부교장으로 있으면서 일개 교수로 말미암아 학교 행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사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이사회는 오금선 당사자를 제외한 20명이 투표하여 19대 1로

73) 『조선중앙』 1936. 1. 3. 「민중 보건 위하여 결핵 요양원 계획, 신촌 부근에 기지까지 사놓았다 - 세의전 오금선씨 담」.

74) 연세의료원 120년사 편찬위원회, 『인술, 봉사 그리고 개척과 도전의 120년』, 299쪽.

오금선 교장을 다시 신임하고, 치과가 독립하겠다는 것도 역시 세브란스이 한 부분이 되어 오금선 교장 체제 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⁷⁵⁾

몇 달 뒤, 1938년 2월에 오금선 교장이 다시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때의 이유는 오금선 교장의 정년이 문제였다. 만60세가 되던 해였으므로, 오금선이 자진해서 사표를 낸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장로회에 의해 제기된 토지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다. 조선 선교의 중요한 축이었던 미북장로회에서 조선에서引退하면서(아마도 태평양 전쟁의 발발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임) 평양의 미션스쿨 3곳이 폐교한 가운데, 10년전 북장로회에서 세브란스병원에 기부한 7천평(시가 3백만원)의 땅은 기부한 것이 아니라 ‘신탁’한 것이니 반환하라는 청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반환 요구의 계기로 정년제도를 새로 만들자 오금선 교장이 섭섭한 마음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이때 다수의 이사들은 이미 10년 전에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로 인정하여 법원에 등기 수속까지 하였으니, 경솔하게 할 수 없으므로 쌍방에서 조사 위원을 2명씩 선정하여 토의, 연구하자고 제안하였다. 북장로회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난항을 거듭하였다. 이사회에서는 선교회와의 문제가 어려우므로, 오금선 교장 후임으로 조선인을 교장으로 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보고, 후임 교장으로 원한경 연전교장을,

75) 『매일』 1937. 7. 15, 「世專紛糾真相」; 『동아』 1937. 7. 21, 「辭表不受理로 留任을 決定」; 『매일』 1937. 7. 22, 「世醫專理事會에서 現正副校長信任, 二十표 투표에 十九대 一로써 齒科分立論도 解消」. 이때에 오금선은 세브란스병원이 서양인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에 “섭섭”하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는데, 미국선교부에서 매년 5만원의 원조비를 보내주던 것이 재작년부터는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1년에 1만원밖에 보내주지 않게 되어 1년 33만원 경영비의 불과 30분지 일이며, 따라서 실질상 순전히 우리 조선 사람들의 경영이라고 하였다(『조선중앙』 1936. 1. 3, 「민중보건 위하여 결핵 요양원 계획, 신촌 부근에 기지까지 사놓았다 - 세의전 오금선씨 담」).

부교장에는 고명우 전 세전 교수를 선임하였다. 원한경이 양교의 교장을 맡게 된다면 두 학교의 통합하여 종합대학을 세운다는 것이 이런 기획에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보도도 나왔다.⁷⁶⁾

오금선이 교장직을 사직한다는 소식을 들은 동창회에서 이에 반발하여 교장 유임 운동을 전개하였다.⁷⁷⁾ 긴급 소집된 동창회에서 ① 오교장을 유임하도록 이사회에 진정할 것, ② 오교장에게 사의를 번복하도록 특청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이 혼란은 상당 기간 간 것으로 보인다. 3월에 시작되었는데, 교장으로 선임된 원한경은 연전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취임을 사절하였고, 총독부에서도 인허하지 않았다. 12월에 이르러 비로소 오금선을 교장과 부교장 예비슨을 유임시켰다.⁷⁸⁾

1939년 2월에 다시 오교장이 정년으로 용퇴한다고 하여 문제가 일어났다.(오금선은 10월생) 오금선이 정년으로 퇴직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를 출선한다는 범례를 보인다는 생각이 었다. 이사회는 최동(崔棟)을 교장으로 앤더슨(安烈)을 부교장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교장 선임 문제는 학무당국의 정식 인가가 있어야 하였는데,⁷⁹⁾ 최동은 총독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이듬

76) 『동아』 1938. 3. 16, 「世專基地返還 要求는 同校死活問題라고 激論 / 北長老 끝까지 土地信託證要求 / 吳校長 停年으로 辭任 / 兩大問題를 건 世專理事會」; 『동아』 1938. 3. 16, 「세전, 연전 연합종합대학 건설의 秋!」; 『매일』 1938. 3. 17, 「昨日 세전 이사회 개최, 正副校長을 改選 / 교장 원한경씨, 부교장 고명우씨, 이사회 정원도 감소」

77) 『매일』 1938. 3. 25, 「모교의 장래를 우려, 오교장 유임 운동」

78) 『동아』 1938. 12. 28, 「세전의 오교장, 정년을 일축코 유임」; 『매일』 1938. 12. 28, 「세의전 오, 어 양씨 유임키로 결정」

79) 『동아』 1939. 2. 22, 「세의전 교장에 최동 교수를 선정 / 오교장 정년으로 용퇴」

해 1940년 2월에 오공선의 사임이 취소되고 다시 교장으로 선임되었다.⁸⁰⁾

5. 나머지 말

오공선 교장 말기에 이르면 일제 침략전쟁의 광풍이 학원가를 휩쓸었다. ‘皇國臣民의 誓詞’를 암송하고, 일본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日本學’이라는 교과목도 개설되었다. 창씨개명도 강요되었다. 학교를 떠나지 않는 한 이런 강요를 피할 수 없었다. 심지어 영향력 있는 사람은 일제의 전쟁에 각종 방법으로 동원되었다.

교장 오공선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⁸¹⁾ 교장 말년, 1942년 6월에 학교 이름을 아사히의학전문학교로 고쳤다.⁸²⁾ 오공선은 1942년

80) 『조선』 1940. 2. 24, 「학교는 이전 안는다 / 교장에 오공선씨 선임」. 이 때 이사회는 북장로회와의 관계도 청산하기 시작하였다. (『동아』 1940. 2. 23, 「世醫專理事會開幕 校舍移轉案을上程」 「同校長選定問題도 同時討議, 校舍基地買收는可?」 - “일찍 문제 많던 ”미회” 계통의 토지반환요구에 대하여 六萬원의 補償金을 지불하여 동 건물 六棟 및 대지를 매수하여 반세기 동안 손을 잡어오던 북장로교 미회 인퇴의 준비공작을 승인키로” 하였다)

81) 교장이었던 오공선은 창씨개명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는 꾀를 내었다. 즉 “內地(일본)에도 「吳」라는 씨가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법적으로는 창씨를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은 모양을 취했다(『社會人士』 『創氏改명』錄, 『삼천리』 12-3, 1940. 3.1. セブラス 醫學專門學校長 吳兢善)

82) 이때 전문학교는 ‘전시교육임시조치령’에 따라 전쟁을 위한 학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름을 모두 바꾸었다. 보성전문학교는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이화여전은 “이화여전 여자청년연성소 지도자 양성과”로 하였다가 다시 “경성여자전문학교”가 되었다. 연희전문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학교가 폐지되고, 재산이 몰수되었고, 이 재산과 학생을 기반으로

8월 교장직을 이영준(창씨개명 公山富雄)에게 물려주었다.⁸³⁾ 일제 말기의 세전을 둘러싼 여러 혼란과 억압, 이에 의한 굴종 등에 따른 문제는 별도의 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를 만들었다. 교장(이사장)이 미국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해방 후의 학교 재건과정도 달랐다.

83) 『매일』 1942. 8. 23, 「새 출발의 旭의전, 21일 신구교장송영식」